

장백산천지

제19호

2007년2월9일

금요일

후세인 사형집행처럼 장쩌민 심판대연맹은 장쩌민 심판을 호소

《전세계장쩌민심판대연맹》은 1월 1일 새해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아래와 같다. (적요)

2006년 12월 30일, 24년 동안 이라크를 통치해온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법정에 의해 반인류죄로 교수형을 당했다. 이라크 법정은 후세인이 시아파 마을 두자일을 탄압할 때 180명을 살해해 반인류죄로 후세인을 사형에 처했다. 후세인과 비교할 때, 장쩌민의 죄가 그 이상이지 이하는 절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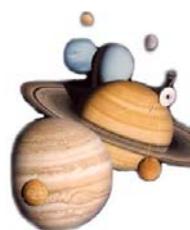
《찐(眞), 싼(善), 런(忍)》 믿음을 탄압하기 위해 장쩌민은 현재까지 7년 넘게 지속해 온 파룬궁에 대한 피비린 탄압을 발동했다. 탄압수단은 극히 잔혹하며 파룬궁 수련생들이 당한 고통은 비참한 것으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탄압 중에서 혹성으로 인해 사망된 사건이 3천여 건이나 됨이 이미 확인 되었다. 1억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 및 가족과 친구가 직접 피해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전반 국가,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많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이번 탄압으로 인해 장쩌민과 중공에 의해 정신 및 양심 상에서의 박해를 받았다.

2006년 3월, 중공이 아주 큰 범위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사건-지구상에서 여태껏 있어 보지 못했던 사악함이 국제 사회에 폭로 되었다. 신양박해와 상업이익을 한데 결합시킨 장쩌민 및 그 범죄집단은 이미 반인류죄를 새로운 극치에 이르게 하였다.

탈당바람이 세참에 따라 중공의 해체는 이미 역전할 수 없는 형세로 되었다. 장쩌민을 심판할 조건이 성숙 되었다. 전세계 장쩌민 심판대연맹은 계속해서 국제 사회의 정의적인 역량과 협력하여 본연맹의 종지를 실현할 것인바 일체 정의의 힘을 모아 장쩌민의 모든 죄를 폭로하여 장쩌민을 양심, 도덕과 정의 및 법률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우주 속 보



- 과학자들은 현재 은하계는 최고 속도로 우주를 리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륜공 수련인들은,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고 우주는 “성주괴멸”이 있으며 은하계는 우주의 최후 정법을 위해 만들었다고 인정한다.
- 과학자들은 지난 5억년 동안 여러 차례 훼멸된 생물들을 분석하고 지구 물종의 대 훼멸의 주기 규률을 발견했으며 지구 생물은 수시로 물종의 대 훼멸을 가져 온다는 결론을 얻었다.

알렉산드로의 3 가지 유언



알렉산드로의 3 가지 유언

바티칸의 알렉산드로 대왕은 위대한 국왕이었다. 수많은 왕국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그는 중병에 걸려 쓰러졌다. 죽음을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그는 장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난 3 가지 유언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로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장병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다. 『첫 번째 유언은 나의 관을 반드시 나의 의사가 혼자 운반해야 한다. 두 번째 유언은 나의 관을 무덤으로 운반할 때 무덤으로 가는 길에 나의 보물고에 있는 금, 은, 보석을 가득 뿌려 놓으라. 마지막 유언은 나의 두 손을 관밖에 내놓으라.』고 했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가장 총애하는 한 장군이 그의 손에 키스하며 말했다. 『폐하, 우린 꼭 그대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알렉산드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 말했다. 『내가 금방 느낀 3 가지 교훈을 세인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의사가 나의 관을 운반하게 한 것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진정으로 사람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생명의 귀중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유언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금전을 추구하지 말라고 알리려는 것이다. 나는 일생 동안 재부를 추구하느라 많은 시간을 랑비했다. 세 번째 유언은 내가 빈 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 빈 손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말을 마치자 그는 눈을 감고 숨을 멈췄다.



새소식



샌프란시스코 집회에서 1800만 인사들의 중공퇴출을 성원

2007년 2월 3일 점심, 노스캘리포니아 주 퇴당봉사 중심에서 샌프란시스코 중국성 화원각에서 집회를 열고 각성한 1800만 중국인이 중공에서 공식 퇴출 함을 열렬히 경축했다.



연변박해진상**박해로 사망된
대법제자 지휘문**

연길시 대법제자 지휘문(39 세)은 2001년 국경 절기간 두 번째로 세뇌반에 붙잡혀 들어갔다. 박남수 등 악경들은 이틀동안 지휘문을 련속 심문하여 모진혹형을 감행한 후 그가 세뇌반에서 죽을 가봐 석방했다.



2001년 3월, 지휘문이 북경에 가 상방했다는 이유로 연길시백화상점에서는 그를 퇴직시켰다.

2001년 8월 27일, **연길시 연남가파출소 지도원**이 몇명의 악경들을 거느리고 와 지휘문의 집을 수색하고 그를 붙잡아 파출소에 가둬놓고 련속 3일 동안 법륜공을 포기하라고 그를 핍박하고 모욕했다. 8월 30일, 그를 의란진세뇌반에 보내여 계속 박해를 감행했다. 악경들은 식사를 못하는 지휘문을 온밤 자지못하게 벌을 세웠고 낮에는 운동장을 수십바퀴 뛰게 했으며 짹하면 욕하고 때렸고 심지어 사부님을 모욕하는 톡상을 보게 했고 법륜공을 포기하라고 강박했다.

9월 4일, 지휘문의 안해가 처음 그 곳에 면회갔을 때, 그는 모진 시달림에 여위여 뼈만 남았고 얼굴은 까맣고 허리는 굽었으며 비틀거리고 겨우 발을 옮겨디뎠다. 9월 9일, 지휘문의 안해가 두 번째로 면회갔을 때는 지휘문의 신체는 더 악화되어 밥도 먹지 못하고 열흘째 굶고 있었으며 허리는 더 굽어지고 걷지 못했다. 악경들은 책임이 두려워 지휘문 안해더러 《보증서》를 쓰게 하고 그를 내 놓았다.

2001년 국경절기간, 연길시연남가파출소 지도원이 지휘문집에 뛰여들어 수색하고 그를 붙잡아 재차 의란진세뇌반에 보냈다. 지휘문은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고 법륜대법을 끝까지 수련하겠다고 표명했다. 악경들은 그를 《전화》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썼지만 《진선인》을 신앙하는 그의 의지를 꺽지 못했다. 모진 혹형과 시달림에 피골이 상접하고 가는 숨을 겨우 내쉬는 지휘문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악인들은 지휘문이 세뇌반에서 죽을가 두려워 그를 석방했지만 **연남가파출소와 가두판사처**에서는 지휘문을 늘 감시했고 소란을 피워댔다. 지휘문의 몸은 날마다 악화되어 전신이 마비되었고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2004년 3월 22일, 그는 한을 품은채 연길시병원에서 세상을 떴다.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고 중공의 법륜공학원들에 대한 박해를 하루속히 제지시켜 주길 바란다!

폭로**박해****연변박해소식**

■ 연길시 법륜공학원 양국서는 2006년 12월 28일에 2년로동교양판결을 받고 장춘녀자로교소로 압송해갔다.

■ 도문시법륜공학원 김성권, 장승범은 세인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연변주 악인들에게 랍치되어 불법판결을 받고 길림시감옥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있다.

**해 몽**

나는 워낙 근심걱정이 없는 사람이였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 가정은 충족하고 행복했다.

1994년, 차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아들딸을 데리고 살아갈 일이 막연했다. 남편을 잃은지 한 달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흰수염 드리운 할아버지가 나타나 원손으로 나를 다독이며 《넌 이후에 천서 한권을 얻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윽고 큰 부처가 나타나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난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병치료할 수 있고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큰 부처는 말없이 웃기만 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였다. 큰 부처가 하늘에 오르자 나는 조급해서 큰소리로 《나에게 병치료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큰 부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였다.

할아버지가 말한 그 천서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온 집안과 밖을 뒤져 봐도 그 천서를 찾지 못했다. 그후 4년이 흘렀다. 온갖 고생살이에 지칠대로 지친 나는 끝내 모진 병에 걸려 닭알 마저 먹을 수 없었다.

바로 내가 막다른 고비에서 허덕일 때, 글내 내가 바라고 바라던 천서 《전법륜》책을 얻게 되었다. 나는 날마다 《전법륜》을 읽었고 련공도 견지했다. 한주일 후 나는 만두와 닭알을 먹을 수 있었고 힘이 났다. 《7.20》탄압이 시작되자 나는 밖에 나가 진상을 알렸다. 중공의 법륜공학원생체 장기적출만행이 폭로된 후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9평》책을 보게 했고 《3퇴-탈당, 단, 대》를 시켰다.

꿈속에서 신이 말했던 《사람을 구한다》는 진정한 함의를 이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진상을 연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덕을 중히 여기고 선을 향하게 함으로써 나처럼 건강을 찾게 하고 삶의 가치를 알게 하며 반본귀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뜻은 거역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기가 샌 전기몽동이

2001년말, 정주로교소 5대대 두 악경이 법륜대법을 비방하는 톡상을 보지 않는 한 대법제자를 사무실로 끌고 와서 의자에 매여놓고 고압전기 몽동이 2개를 꺼내들고 전기충격을 가했다. 그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정법구결을 외웠다. 악경들은 전기몽동이를 그의 입에 댔다. 그는 계속 발정념 했다. 갑자기 두 악경이 고함쳤다. 《전기몽동이에서 전기가 새버렸다.》 《전기몽동이에서 전기가 새버렸다.》